

한국어학급 유치원까지 확대 운영

올 총 15개 학급서 운영... 전북교육청, 학교생활 적응·또래 관계 형성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중도입국·외국인 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운영 중인 한국어학급을 확대한다.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초등학교 중심으로 운영되던 한국어학급을 올해는 유치원까지 확대 총 15개 학급에서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어학급을 유치원 단계까지 확대함으로써 유아기부터 학교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과 일상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이다.

이에 따라 언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생활지도와 학급 운영에 부담이 컸던 학교 현장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한국어학급은 다문화학생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거점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유치원은 군산 새만금초병설유치원과 전주 금령초병설유치원에 설치된다.

초등학교는 군산 소룡초·산북초·새만금초, 익산 익산초·이리백제초·이리백일초, 전주 전주금령초, 정읍 한

솔초·정읍서초, 김제 월성초 등 총 10개교에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이들 학교에는 교당 2,000만원 내외의 예산 지원과 한국어학급 전담 정규 교사(담임)를 배치한다.

특히 학급별 소규모 편성과 학생 수준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및 또래 관계 형성을 돕고 교실 수업 참여에 필요한 기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은 1월 말 한

국어학급 설치교 관리자 및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연수에서는 한국어학급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학생 지도 및 학교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운영 역량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정미정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유치원까지 확대되는 한국어학급 운영은 다문화학생의 안정적인 학교 적응을 돕고, 외국인학생 밀집 학교의 교육 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22일 우석대학교 전주캠퍼스 대학 본관 5층 우석홀에서 2025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공유회 가 열린 가운데, 박노준 총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하고 있다.

지난 한해 대학혁신지원사업 추진 성과 공유

우석대,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가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에 대한 구성원 간 공감대 형성과 성과 확산을 위해 2025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22일 전주캠퍼스 대학 본관 5층 우석홀에서 열린 성과공유회는 박노준 총장과 교무위원, 교내 구성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추진된 교육·학사·학생지원·비교과 분야 전반의 주요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학 운영과 혁신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함윤영 혁신사업단장의 개회사와 박노준 총장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학생모니터링단과 혁신인재지원사업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이어 함윤영 혁신사업단장 겸 기획처장이 미래 대응 대학운영 기반 조성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김성희 교육혁신본부장 겸 교무처장도 학사 구조의 유연화와 AI 대전환의 시작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2부에서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도출된 부서별 성과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IT센터는 비롯해 학생상담센터, 교양교육지원센터, 학사관리팀, 교수학습지원센터, 원격교육지원센터, 전

공설계지원센터, 역량개발인증센터 등 총 10개 부서가 참여해 각 부서의 주요 추진 성과와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발표 후에는 질의응답과 자유 의견 공유를 통해 구성원 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밖에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부서별 대학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 포스터와 학생 참여 성과물이 전시되고, 주요 성과를 담은 영상이 상영돼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박노준 총장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축적된 성과를 구성원과 공유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대학 자율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 중심의 교육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원주=연재복 기자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첫 금고에 NH농협은행 전북본부

내달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금고 업무 전반 담당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첫 공식 금고로 NH농협은행 전북본부가 선정됐다.

전북의 미래 인재와 평생교육을 위한 동반자를 맺는 자리였던 만큼 이번 결정은 단순한 금융기관 선정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지난 20일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한 경쟁입찰을 거쳐 NH농협은행 전북본부를 단일금고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2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진흥원의 자금 수납·보관·지급 등 금고 업무 전반을 맡게 된다.

이번 금고 선정은 진흥원 설립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공식 금고지정 절차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운영되던 주거래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 금고 선정과 같은 평가 기준을 적용해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결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심의위원회는 교수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장학시설 관계자, 도의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됐으며, 금융 안정성, 금리 조건 협력사업 계획 등을 엄정하게 종합 평가했다.

평가 결과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96.3점을 받아 95.1점을 기록한 전북은행을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특히 농협이 제시한 제안은 '이익'보다 '가치'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는 평이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금고 업무 수행뿐 아니라 장학사업 지원, 평생교육 활성화 등을 위한 협력사업, 진흥원 임직원 금융 컨설팅, 자금관리 시스템

지원 등 공익적 동반자 역할을 특히 강조했다.

유승곤 NH농협은행 전북본부 도청지점장은 이번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금고 선정과 관련하여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평생교육과 장학사업을 통해 전북의 미래를 위한 씨앗을 뿌리는 소중한 기관인 만큼 그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민족 은행이자 지역 중심 대표 금융기관인 NH농협은행 전북본부가 반드시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의 역할이 단순한 이윤 창출에 그치지 않고 지역과 미래세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한 결과 금고 선정에 응모하게 되었다"며 "도민을 위한 평생교육과 인재 양성의 길에 NH농협은행 전북본부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금고 선정의 의미와 각오를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교육청, 초등 4~5학년 '학폭 예방 역할극'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역할극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전북교육청은 관계·회복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를 위해 올해 초등학교 4~5학년 420여 학급에서 '학교폭력예방 역할극'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역할극은 실제 학교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상황을 역할극으로 구현함으로써 학생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방관자가 아닌 '방어자'로서의 역할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참여형 교육이다.

특히, 회복적 정의 실천을 핵심 가치로 삼아 갈등과 상처의 책임을 묻는 데서 그치지 않고 관계 회복과 공동체성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성찰하고,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역할극은 40여 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강사가 참여한다. 강사들은 실제 연구 배우들로, 현장 교원과 사전 시나리오 검증 및 수업 시연을 진행한 뒤 교육에 나서게 된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은 지난 20일 학교폭력예방 역할극 강사 역량 강화 연수를 가졌다.

/김재훈 기자

전북대 황인호 교수 축산식품학회장 선출



전북대학교 황인호 교수(동물자원과학과)가 한국축산식품학회 신임 회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1년이다.

한국축산식품학회는 축산식품 자원의 이용에 관한 기초 및 응용연구를 촉진하고, 관련 이론과 기술을 보급함으로써 이 분야 학문과 산업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황 신임회장은 취임 인사말을 통해 "축산식품이 국민의 건강과 식문화를 이끄는 핵심 분야로 자리잡은 만큼, 학회가 학술적 기반을 강화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중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영문 학술지 FSAR of Springer Nature 출판 전환, 국문 학술지 Food and Life의 등재학술지 기반 강화 그리고 CoMST 2026 성공 개최를 통해 학회가 세계 속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회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국립군산대, 2026학년도 융복합 교육과정 개발 공모 발표평가회

국립군산대학교(총장 직무대리 엄기욱)는 지난 20일 대회의실에서 2026학년도 융복합 교육과정 개발 공모 발표평가회를 개최하고,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혁신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발표평가회는 융복합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기획된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 계획을 공유하고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마련됐다.

공모에 참여한 총 7팀은 전공 간 경계를 넘어서는 교육과정 구성, 산업·사회 수요를 반영한 교육 내용, 학생 중심의 학습 설계 등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평가위원들은 교육과정의 창의성, 융복합성, 실현 가능성 및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각 제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실제 교육 현장 적용 가능성과 향후 확산 가능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며 평가회의 내실을 더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학생 중심 캠퍼스 혁신 이끈다'

전주대 제53대 '내일' 총학생회 출범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 제53대 '내일' 총학생회(총학생회장 정준영, 부총학생회장 이지석)가 '오늘의 한 걸음, 우리가 만드는 내일' 비전을 제시하며 학생 자치의 신뢰를 회복하고, 모두가 동등하게 누리는 캠퍼스 생활을 위한 6대 핵심 공약 추진을 통해 변화의 시작을 일컫는다.

학생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내일' 총학생회는 단순히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의 꿈이 실현되는 캠퍼스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일' 총학생회는 △바리어프리 캠퍼스 활성화(장애인 시설 개선·축제) △신인원 적응 프로그램 개편(토크콘서트+동아리 박람회) △학사 시스템 안정화(불편 상시 접수·개선) △공모전·장학금 홍보(SNS 집중+공모전 중심) △소통창구 확대(카톡채널·소통함·간담회) △학생 복지 증진(생필품 공동구매·공동학점·쉼터 확보) 등 학생들의 실질적인 니즈를 반영한 정책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정준영 총학생회장은 "학생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정책의 중심에 두고, 언제나 곁에서 힘이 되는 제53대 '내일' 총학생회가 되겠다"며, "약속드린 공약들을



전주대학교 '내일' 총학생회 정준영(사진 왼쪽) 회장과 이지석(사진 오른쪽) 부총학생회장.

하나하나 성실히 이행하여 학생 모두가 즐겁고 활기찬 전주대학교의 밝은 내일을 열어가겠다"고 전했다.

전주대학교 제53대 '내일' 총학생회는 일상의 작은 부분부터 세심하게 살피는 실질적인 변화를 통해 전주대학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언제나 학우들과 보폭을 맞추며 모두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대학 공동체를 향해 합차게 나아갈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따뜻한 학교, 설레는 교육'

24일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 출판기념회

이남호 전 전북대학교 총장이 자신의 교육 철학과 삶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펴내며 독자와 만난다.

이 전 총장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전주대학교 학생회관 3층 수퍼스타홀에서 저서 '진짜배기 이남호, 교육에 향기를 심다 - 따뜻한 학교, 설레는 교육'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단순한 책 소개를 넘어, 전북교육의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공감의 장으로 마련됐다.

교육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동력을 찾고, 지역 교육이 지닌 가능성과 책임을 다시 묻는 자리다.

책에는 흔히 말하는 '모범생'이 아닌 '모험생 이남호'의 삶이 담겼다. 흠수저 소년으로 성장해 교육자의 길을 걷어온 개인사와 함께, 어머니에 대한 기억, 교육자로서 품어온 고민과 성찰이 실려 있다. 성공담보다는 실패와 도전 그리고 교육이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담담하게 풀어냈다.

특히 책에서는 전북 교육이 마주한



구조적 한계를 짚는 동시에, 이를 넘어설 새로운 시각과 실천 방향을 제시한다.

출판기념회에서는 저자와의 대화를 통해 책 속에 담긴 교육 가치와 함께, 전북교육이 지향해야 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변화의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중3 골든타임 프로젝트 추진할 것'

황호진 전 부교육감

전북교육회합포럼 황호진 대표(전 전북 부교육감)가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전북 교육의 대전환을 위한 핵심 정책을 발표했다.

황 예비후보는 유치원부터 대입까지 황호진이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교육정책과 행정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집중해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약속했다.

황 예비후보의 제1호 공약인 '출생 교육지원금 1억원'은 도내 출생아에게 20년에 걸쳐 매년 500만원씩 지급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교육청(40%), 도정(40%), 시·군(20%)이 재원을 분담하는 협력 모델로 운영되며, 지역 상생형 소비 카드로 지급돼 교육비 부담 경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한다. 사용자의 자율성을 존중해 아이 성장을 위한 곳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마지막 해는 실질적으로 대입 등록금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제3호 공약인 '중3 골든타임 프



젝트'는 진로와 진학의 결정적 시기인 중학교 3학년 과정을 교육청이 직접 책임지는 사업이다. 고입 직전의 중3 기간을 강력한 진로 연계 학년으로 운영해 고교 선택은 물론 취업과 대입 정보를 전문적 수준으로 제공하기 위해 △중·고교 재검사 △대입 정보 제공 △1:1 맞춤형 컨설팅 등 3단계 로드맵을 가동한다. 대입 전문가와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해 학생 개인의 진로 역량을 설계하고 대입 전형자료가 생생하게 시작하는 고교 생활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도록 돕는다.

황 예비후보는 교육부 OECD 교육외교관을 거쳐 전북 부교육감을 4년 2개월간 역임한 검증된 교육 행정 전문가다. 그는 "준비된 실력으로 무너진 전북 교육을 복원하고, 아이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전북에서 꿈을 키울 수 있는 희망 교육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